

■ 나해·제2294호

연중 제29주일 · 전교 주일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2024년 10월 20일



제98차
전교 주일
포스터

목 차

02 말씀의 향기
되새김

03 평신도 단상
서로 미워하세요?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²⁹

05 담화 요약
2024년 전교 주일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천주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
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2,1-5

화답송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 28,16-20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조영수 마태오 신부
사목국장



언제부터인가 별 까닭 없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는 했습니다.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매일의 규칙적인 흐름이 깨지는 것이 피곤하여 대책을 찾아보았지요. 기도도 바쳐보고 우유를 따뜻이 데워 먹어도 보았지만, 묵주기도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배를 가득 채운 우유로 더부룩함만 생겼습니다. 그래도 잠에 드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가까이 지내는 신부님께서 ‘갱년기야’라고 알려주셨지만 별로 믿고 싶지 않아 다른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우주(宇宙)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영상물을 보는 것은 꽤 효과가 좋았습니다. 일단 우주다 보니 대부분 화면이 깜깜한 것이 마치 밤하늘을 보는 듯했고, 해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니 자장이 같았지요. 무엇보다 제가 골수 문과 출신이라 그런지, 아무리 듣고 들어도 당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해설을 듣다 보면 절로 하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쉬이 잠 못 드는 밤에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다 보니 이게 웬걸, 재미가 느껴지는 겁니다. 대충 아는 것도 생기고 관심도 생겼으며, 언제부터인가 관련 분야 학자들의 강의를 찾아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훌륭한 학자들의 강연을 듣다 보니 저서를 사다 읽기도 하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지식에 경탄하기도 하였지요. 결국 이제는 그런 영상들이, 훌륭한 수면 보조제의 효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참 좋고 귀한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이 신앙을 몰랐다면, 이 신앙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고, 이 신앙 덕분에 약속된 희망의 울제(‘내일’의 순우리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자신에게 있어서의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 신앙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앙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그 고마움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참 바쁘게 흘러가는 나날이지만, 그렇게 한동안 신앙에 대해 더듬다 보면 잊고 지냈던 것들, 별생각 없이 흘러보냈던 것들,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이 마음속에 새롭게 피어납니다. 또 지금의 자기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을 향한 복음화의 시작점은 우리가 가진 신앙을 되새겨보는 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 신앙의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겨보고, 그 의미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듯 꿈틀덜 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의 소리가 온 땅으로 힘 있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서로 미워하세요?



몇년 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른 부서의 상사분과 협업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늘 웃는 인상이셨고 그때까지 저와는 딱히 접점이 없었기에 별생각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몇 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업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야 했었고 상사분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사소한 뼈격거림이 쌓여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상사분은 저의 인사를 받지도 않으셨고 사사건건 저를 무시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것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싹을 트고 점점 자라났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사의 무시나 폭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미워하는 일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하지요. 때때로 상사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저를 잠식할 때 엄청난 자괴감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나쁜 사람인 걸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출근하여 상사와 얼굴을 마주하면 증오가 끓어올랐습니다. 자꾸만 미워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일들을 곱씹으며 미워하지 말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고 넘겨 버리는 건 어때니. 그 사람은 너 자신이 아니니 너랑 생각이 다른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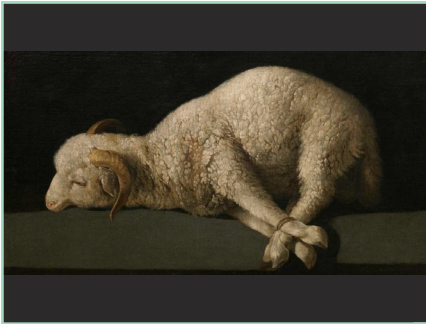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도 저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고 말한 다 해도 생각의 차이라고 인정하자 마음속에 자그마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고, 악한 감정을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도 같이 미워하며 미움의 굴레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의 하루는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직장뿐 아니라 성당에서도 간혹 이런 다툼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느 단체의 누가, 신부님이, 수녀님이, 누가 누구랑 싸웠다더라 하는 그 다툼의 시작은 매우 사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사소한 미움을 곱씹으며 크게 부풀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까지는 못 해도 미워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보시면 어떨까요?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골로 3,15)

샤워할 때 물 아끼고 샤워시간 줄이기

프란치스코 수르바란 <하느님의 어린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²⁹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죽음, 하느님의 어린양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임종 세례, 곧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는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적어도 기본 교리(즉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별약)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55조 1항 2.). 이미 설명한 ‘강생’과 함께 기본교리 중 하나로 묶여 있는 ‘**구속(敍贖, Redemptio)**’에 대해 알아보시다.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며 성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로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구속(敍贖), 라틴어로 Redemptio는 구원, 속량, 대속과 같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으며 본래는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바치던 어린양과 같이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름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없애 주시고**(가톨릭 교회 교리서 608항)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이 전하는 예수의 공생활에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그들에게는 하느님을 모독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574-575항 참조).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하느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행하신 예수께서는 이를 통해 당신께서 구원자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셨으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분을 신성모독자로 판단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590, 594항 참조).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은 이런 대립의 결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은 불행한 상황들 때문에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써 놓으신 각본을 수동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느님의 계획에는 각 사람의 자유로운 응답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배신자 유다나 최고의회, 빌라도, 그리고 십자가형을 외친 군중들과 같은 사람들의 무지에서 나온 행동을 허락하셨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00항 참조).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당신 아드님을 죄 때문에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죄 없는 분을 죄인으로 만드시어 우리 모든 죄인과 연대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02항 참조). 강생하시는 첫 순간부터 이 사랑의 계획에 순명하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 구속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결국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 하심으로써** 이 사랑의 뜻을 이루셨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06~607항 참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는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신성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안에 품음으로써 그분의 희생 제사를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가 되게 하셨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15~616항 참조).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245~272쪽, 571~630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 담화 원문 보기

교회문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2024년 전교 주일 교황 담화 요약

‘가서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여라’ (마태 22,9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올해 전교 주일을 위하여 선택한 주제 혼인 잔치의 비유(마태 22,1-14 참조)의 주인공인 임금은 자신의 초대를 손님들이 거절하자 종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마태 22,9). 우리는 이 핵심 구절을 성찰하면서 복음화의 여러 중요한 측면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1. ‘가서 초대하여라!’ 주님의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러 끈기 있게 나아가는 선교 사명

임금이 종들에게 내린 명령에서, 우리는 선교 사명의 핵심을 표현하는 두 단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가다’ 그리고 ‘초대하다’ 입니다. 이를 통하여 선교는 하느님과 만나고 친교를 시작할 수 있게 초대하려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 이러한 보편적 선교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임금은 종들에게 ‘가라’ 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하라’ 고 명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선포되시는 그분의 ‘방식’ 을 그대로 본받아야만 합니다. 압박이나 강요나 개종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밀감과 연민과 온유로 그리고 이로써 하느님의 고유한 존재 방식과 행동 방식을 반영하면서 해야 합니다.

2. ‘혼인 잔치에’ –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명이 지니는 종말론적 차원과 성찬의 차원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한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종들에게 일렸습니다. 이 잔치는 종말론적 잔치를 반영합니다. 종말론적 잔치로의 초대, 주님께서 당신 말씀과 성체 성혈을 양식으로 주시어 우리를 살피우시는 성찬 식탁으로의 초대와 본질적으로 연결됩니다.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성찬례를 모

든 차원에서, 특히 종말론적이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더욱 강렬하게 체험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식탁에 나아가면 선교에 이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는 하느님 마음 그 자체에서 시작되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사랑의 성사」, 84항).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향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혼인 잔치를 향하여 걸어가는 희망의 순례자이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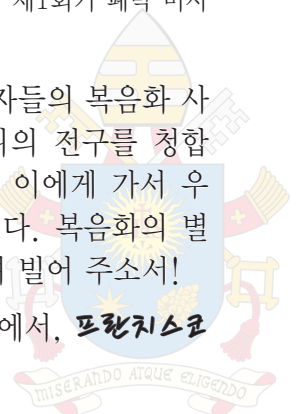
3. ‘모든 사람들’ – 시노드 정신을 온전히 살아가며 선교하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닌 보편 사명

세 번째 성찰은 임금의 초대를 받는 이들, 곧 ‘모든 사람’ 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이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교 활동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

모든 이를 위한 선교 사명은 모든 이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봉사하는 가운데 시노드 정신을 온전히 살아가며 선교하는 교회를 향한 여정을 계속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보편 교회에도 개별 교회에도 모두 긴밀한 선교 협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시노달리 타스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며, 그 반대로 선교 또한 언제나 시노드적입니다. 우리가 시노드 정신을 더욱 깊이 살아가는 더욱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이끄심과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폐막 미사 강론, 2023.10.29. 참조).

끝으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 제자들의 복음화 사명을 위하여 성모 마리아께 어머니의 전구를 청합시다. 그리고 가서 전합시다. 모든 이에게 가서 우리 구세주 임금님의 초대를 전합시다. 복음화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춘천·원주 사제 체육대회

10. 21.(월) 13:30,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사제평의회·참사회

10. 22.(화) 10시, 가톨릭회관

사제 연수

10. 22.(화)~25.(금) 가톨릭회관

견진성사

만천 본당: 10. 26.(토) 18시

주교좌 죽림동 본당: 10. 27.(주일) 11시

소양로 본당: 10. 31.(목) 19시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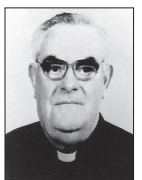
10. 23.(수) 카페스트라노의 요한
송준호 신부

오남성 후베르트 신부 18주기



생년월일 : 1915. 3. 6.
서 품 일 : 1938. 12. 21.
선 종 일 : 2006. 10. 25.

박 토마스 주교 30주기



생년월일 : 1925. 8. 8.
서 품 일 : 1966. 5. 11.
선 종 일 : 1994. 10. 30.

주영덕 비오 신부 17주기



생년월일 : 1973. 4. 13.
서 품 일 : 2004. 9. 17.
선 종 일 : 2007. 10. 31.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춘천 평협 하반기 상임위원회

10. 26.(토) 말당회관

여성연합회 서부지구 여성 임원 1일피정

10. 26.(토) 내촌 성당

위령성월피정<죽음, 그 영원한 희망>

11. 15.(금)~17.(주일) 가톨릭회관

피정도움: 배광하 치리아코 신부

신청: 11. 4.(월)까지 선착순(입금기준)

접수: cccacenter@daum.net

참가비: 2인 1실 17만원, 독실 20만원

신협 131-019-838389 춘천교구가톨릭회관

일정표 및 세부안내 다음카페 가톨릭회관 참조

☎ 033-245-7300

춘천교구 성령쇄신 금요기도회

10. 25.(금) 19~23시, 운교동소성당

강사: 김혜숙 베네딕다(서울대교구)

미사: 19:30,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

주차: 성당 및 운교노인복지센터 앞

☎ 010-2962-4051

10월 예비 신학생 모임

10. 27.(주일) 14시, 춘천·남춘천: 퇴계 성당

중부: 홍천 성당 / 서부: 포천 성당

영동: 노암동 성당 / 영북: 교동 성당

11월 카나 혼인 강좌

11. 30.(토) 18:30, 애막골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갯세마니 가을 동산 음악 피정

11. 1.(금) 18:30, 갯세마니 피정의 집

주제: 일어나 아버지께 (루카15,18)

출연: 메타노이아(김정식 로제리오, 테너 송봉섭) 등

참가비: 없음, 자유롭게 후원 가능합니다!

준비물: 겨울 점퍼, 무릎 담요

이벽 진모터 위령의 날 미사

11. 2.(토) 11시, 화현 이벽성지 이벽 진모터

오시는 길: 화동로 447(이벽 유적지)

위령 미사 후 연도 바칩니다.

☎ 031-531-2234 화현 이벽 성지

※ 알려드립니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하느님의 뜻 영성 기도회’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천상의 책」에 나타난 심각한 오류들을 확인하고, 서울대교구에 「천상의 책」의 출판 허가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교구와 수도회에 전달하여 신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대교구에서는 「천상의 책」과 관련한 도서 출판 허가를 취소하고, ‘하느님의 뜻 영성 연구회’ 관련 모임과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시몬 춘천교구장 주교님께서는 2023년 10월 사제평의회를 통해, 교구 안에서 「천상의 책」의 열람 및 회람을 금지하고, ‘하느님의 뜻 영성 기도회’ 모임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하시면서 “하느님 백성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히셨습니다. ‘하느님의 뜻 영성’과 관련한 책자는 「천상의 책」 20권을 비롯해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 「하느님의 뜻 영성」, 「영적 순례 24시간」, 「하느님의 뜻 기도 모임」, 「거룩한 미사」 등이 있습니다.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서울 자양동 수녀원(건대입구역)	010-7197-1390	한사람은 온세상보다 소중합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0. 27.(주일) 14시	운교동 성당	010-9353-1773	수도생활과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 · 김경옥 비르짓다

속초 나드리 여행사

일본 히로리, 상고도, 나가사키 10/28

날짜확정 4박 5일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밀

☎ 010-5373-8181 어일훈 느헤미야

본 당 알 림

10월 하느님 자비의 기도모임

10. 21.(월) 13~16시, 임당동 성당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 강의, 성시간, 고해
성사, 미사 / 매월 세번째 월요일

박 토마스 주교 30주기 미사

10. 30.(수) 11시, 주교좌 죽림동 성당
주교님의 헌신과 사목적 열성을 기억하며 많
은 참석을 바랍니다.

인 준 시 설

죽림동주교좌성당부설 성심유치원 원아 모집
연령: (만5세)2019년생~(만3세) 2021년생까지
가톨릭신자우선모집기간: 11. 1.(금)~5.(화)
일반모집기간: 11. 19.(화)~22.(금) 18시까지
홈페이지: www.sungsimkids.co.kr
☎ 010-7116-7443, 033-255-7443

모현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재)천주교마리아의작은자매회유지재단
주소: 경기도 포천시 왕방로 210
☎ 031-535-2519 F. 031-536-8992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직원 모집

조리원 1명, 작업지도원 1명(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가능)
필요서류: cafe.daum.net/fvjhouse 에서
확인, kkotjs111@hanmail.net로 제출
☎ 031-589-0210 가평꽃동네 환희의집

성골롬반의집 요양보호사 모집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방문, 팩스, 이메일 colum2004@
hanmail.net
☎ 033-262-0935~6 팩스 262-0937

일 반 알 림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2일>

25년 3. 30. / 599만원(+2100유로)예정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catravel.co.kr
☎ 070-4086-0207 가톨릭 트래블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상시모집
신청강의/수료이벤트/다양한무료콘텐츠 제공
☎ 031-360-7635, 010-7470-7966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연말연시피정 접수중)
자연순례: 11. 7~9./11. 11~13./11. 21~23.
추차도합: 11. 16~19./11. 25~28./3. 23~26.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모집(2025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
문화학 석사과정/ 입학전형: 12. 2.(월) 14시
원서접수: 11. 4.(월)~15.(금) 17시
☎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

춘천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 하우스디
시그니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불어 저희 가톨릭춘천신협 본점(죽림동)/
지점(거두리)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 033-255-6742
지점 033-262-6742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12. 3.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45만원
1. 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 17.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 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 28.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12일) 48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 11. 1.(금)~9.(토)/12. 6.(금)~14.(토)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36만원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각 3박 4일-120만원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청주 조정성령회관 치유평정

10. 26.(토) 14시~27.(주일) 14시, 조정성령회관
강사: 김완식 요셉, 전국 유명강사
버스: 조치원역 신한은행앞 12:20 출발
청주고속버스터미널앞 12:40 출발
☎ 043-213-9103, 010-5482-6744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나이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노년을
보다 의미있고 충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프로그램
일정: 11. 11~25. / 12. 9~16. (1주 75만원,
2주 150만원) 장소: 홍천 / 대상: 60세 이상
☎ 010-7451-9707 문의

라파엘 성지순례 02-778-8565

1. 6. 멕시코, 과달루페, 칸쿤 10일 715만원 / 라파엘 특선
동반자 100만원 할인 / (1. 17./2. 14./3. 14.) 시칠리아 몰
타 10일 / (1. 15./2. 11./3. 11.) 포르투갈 파티마 일주 9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지 오 건 장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도배, 장판, 욕실, 주방시공
건축, 목공 국가자격증 소유
☎ 010-8480-1789
이보람 가브리엘

중앙산부인과(숙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건강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균하 다미아노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705-9913
한민지 효주아네스 · 홍승후 켄마

숙초 동명향(영금정)

바다축제(코다리조림)
대구목살, 생선 모든
코다리, 가오리 조림(전문)
위치: 영금정로 20(동명동1-83)
☎ 637-5070, 010-3756-9380
조칠성 베드로 · 이봉자 벨라데타

#춘천 모든 굴삭기
불도저 렌탈(임대)

토목, 조경, 보강토, 토사운반, 불도저
경지정리 등, 각종 난공사, 무료 견적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 · 이은경 테오도라

춘천즐거운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모집(장
기요양등급신청 무료 대행)/직장에 계신 시간
동안 안전하게 어르신을 돌봐드립니다.
☎ 010-3375-4977 김수정 레나